

KBO리그 6월 MVP 누구

최정, 25경기 타율 0.447
10홈런 등 6개 부문 1위

하재훈, 9G 9이닝 1실점
해외유턴파 KBO첫 시즌

요키시, 규정이닝 투수 중
평균자책점 0점대 '유일'



SK 와이번스 최정과 하재훈, 키움 히어로즈 에릭 요키시가 6월 최고 선수 자리를 두고 다룬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일 KBO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이 후원하는 2019 신한은행 미야카 KBO리그 6월 MVP 후보를 확정했다.

최정과 하재훈, 요키시 등 3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6월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에서 하는 팬 투표를 합산한 점수로 최종 선정된다.

유일한 타자 후보 최정은 6월 한 달간 압도적인 성적을 냈다. 25경기에 출전해 타율 0.447, 10홈런 26타점 22득점 출루율 0.550, 징타율 0.947 등 6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결승타도 4차례 때려내 부문 공동 1위에 올랐고 득점권

타율 0.526로 역시 선두를 지켰다.
미무리 투수 하재훈은 6월 한 달간 9경기에 출장해 9이닝 1실점, 평균자책점 1.00을 기록했다. 삼진은 12개를 속아내면서 1승6세이브로 SK의 뒷문을 책임졌다. 특히 지난 4월4일 문화 롯데 지이언츠전부터 지난달 22일 문화 두산 베어스전까지 30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벌였다. 해외유턴파로 KBO리그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하재훈은 1일까지 18세이브로 키움 조상우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라있다.

선발 투수 요키시는 6월 한 달간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중 유일하게 0점대 평균자책점(0.53)을 기록했다. 총 5경기에 선발 등판해 3승무패를 거뒀다. 지난달 9일 잠실 두산전에서는 무사사구 완봉승을 거두기도 했다. 삼진/볼넷 비율(6.00),

WHIP(이닝당출루허용률·0.82) 부문 1위를 비롯해 승리 공동 2위, 팔심진(30) 공동 4위에 올랐다.

'신한 SOL'에서 아워지는 6월 MVP 편부표는 2일부터 6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신한은행에서는 투표 종료 후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마이신한포인트, 야구 애매권, 스타벅스 아메리카카드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KBO 월간 MVP로 선정된 선수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60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비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MVP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1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기자단 투표와 팬 투표를 합산한 6월 MVP는 8일 발표된다.

뉴시스

강정호, 시즌7호 홈런 폭발

시즌 타율 0.162…피츠버그, 시카고에 18-5 대승



피츠버그 피어리츠 강정호(32)
가 시즌 7호 홈런을 때려냈다.

강정호는 29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1홈런)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159에서 0.162로 소폭 상승했다.

최근 3경기 연속 결장했던 강정호는 4경기 만에 선발 리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초반 끝망이에는 침묵했다. 1회 몸에 맞는 볼로 걸어나간 강정호는 2회 1루수 뜬공, 4회 헛스윙 삼진 5회 3루수 병살비트로 물러났다. 다섯 번째 타석은 달랐다. 상대 '내야수'가 미운드에 오른 친스를 놓치지 않았다. 컵스는 일찌감치 점수 차가 벌어지자 7회말 미운드를 다니엘 데스칼소로 교체했다.

강정호는 팀이 13-5로 앞선 7회 말 2사 2루에서 데스칼소의 초구 81.1미일(약 130.5km) 슬라이더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지난달 27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 이후 2경기 만에 나온 시즌 7호포다.

강정호가 홈런을 치면서 피츠버그는 선발 전원 안타도 완성했다.

유격수로 나선 강정호는 호수비

도 선보이며 눈도장을 찍었다.

한편, 피츠버그는 장단 23안타로 컵스 미운드를 두들기며 18-5로 대승을 거뒀다. 피츠버그 4번 타자 조쉬 벨은 홈런 3방을 포함해 6타수 4안타 7타점을 쓸어담으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이번 대회의 참가규모는.

"참가국은 198개국이며 입원과 선수, 심판진, 해외 미디어 등 7806 명이 광주를 찾는다. 지난 2017년 부다페스트대회 177개국, 2015년 카잔대회 184개국보다 9개국이 늘었다. 국가별 참가 선수는 미국이 163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태리 127 명, 중국 126명, 러시아 98명, 한국 82명 순이다"

▶광주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개·폐회식 연출은.

"개회식은 '빛의 분수'를 주제로 12일 오후 8시20분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리며 5·18민주광장과 연결돼 이원 생중계로 100분간 진행된다. 세계의 물이 5·18민주광장 분수대에서 하나가 되고 광주의 빛과 세계의 물이 만나는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폐회식은 선수권대회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5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진행된다. 이어 결승경기

▶세계수영대회가 광주에 남길 자산은.

"수영대회 참가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대회를 통해 광주 도시브랜드인 문화·스포츠의 도시, 민주·인권·평화의 이미지를 지구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광주가 깊은, 문화,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세계 명품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회를 통해 광주라는 도시가 세계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

뉴시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D-9

세계 5대 메가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막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최 도시 광주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 담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전반적인 준비상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주목해야 할 수영스타 등을 소개한다.

조영택 사무총장 "지구촌 수영축제 손님 맞이 완료"

입장권 판매율 순항, 경기장·선수촌 공사 마무리

자원봉사·통역·수송 등 광주시민도 한마음 준비

민주·인권·평화 광주의 이미지 세계 곳곳에 전파



2019 광주FINA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직 위원회 조영택 사무총장은 1일 뉴

시스와 인터뷰를 통해 "모든 분야의 준비가 미루리되고 있다"며 대회 성공을 다짐했다.

그는 "역대 최대 참가국이 광주에 오는 만큼 수영대회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비롯해 성숙된 시민 의식, 민주주의를 뽐내는 광주정신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조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대회 개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준비 상황은.

"실전체제로 전환해 인력과 물자 배치를 완료했다. 경기장 건설도 미루리 됐고 환경정비를 설치하는 일만 남았다.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과 분야별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선수촌은 25개동 1660세대, 6000명이 동시 입촌 가능하며 선수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센터, 피트니스센터, 의료시설 등이 완비돼 2일 미디어, 5일 개촌식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대회의 참가규모는.

"참가국은 198개국이며 입원과 선수, 심판진, 해외 미디어 등 7806 명이 광주를 찾는다. 지난 2017년 부다페스트대회 177개국, 2015년 카잔대회 184개국보다 9개국이 늘었다. 국가별 참가 선수는 미국이 163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태리 127 명, 중국 126명, 러시아 98명, 한국 82명 순이다"



▶입장권 판매 현황은.

"입장권 판매율은 판매수량 기준 73.4%, 금액 대비 84.4%를 기록하고 있다. 인기 종목인 하이다이빙과 개인복식은 이미 매진됐다. 기관·기업의 입장권 구매가 예정돼 있고 각종 시민모임까지 입장권 구매가 확대되고 있어 판매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주목할 만한 수영스타는.

"이번 대회는 내년 일본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세계적 수영스타들이 광주를 찾는다. 한국은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혼영 200m에서 세계 1위 일본의 '오하시 유이'를 꺾고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한 김서영이 출전한다. 임다솔은 국가대표 선발전과 동아수영대회에서 배영 100m 한국 신기록을 새로 작성했고 우하립도 지난 2016 브리질 리우올림픽 한국 디아빙 사상 최초로 결선에 진출했다. 해외는 2017년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7관왕을 차지한 미국의 카엘렌 드레슬과 중국의 쑨양, 미국의 케이티 레네키 등이 있다"

▶광주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개·폐회식 연출은.

"개회식은 '빛의 분수'를 주제로 12일 오후 8시20분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리며 5·18민주광장과 연결돼 이원 생중계로 100분간 진행된다. 세계의 물이 5·18민주광장 분수대에서 하나가 되고 광주의 빛과 세계의 물이 만나는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폐회식은 선수권대회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5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진행된다. 이어 결승경기

▶끌난 이후인 오후 10시40분께 남부 대 주경기장에서 최종 페막한다"

▶수영대회 기간 '예향광주'를 알릴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는.

"국내외 관람객들을 위해 광주의 맛·멋·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11일 전이제 행사를 시작으로 문화캘린더를 만들어 매일 선수촌과 경기장 주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문화광장, 광주문화예술회관 등에서 문화행사가 열린다. 세계청년축제를 비롯해 월드뮤직 페스티벌, 광주연극축제, 한·중·일 예술제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된다"

▶세계수영대회가 광주에 남길 자산은.

"수영대회 참가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대회를 통해 광주 도시브랜드인 문화·스포츠의 도시, 민주·인권·평화의 이미지를 지구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광주가 깊은, 문화,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세계 명품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회를 통해 광주라는 도시가 세계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

뉴시스

■ 쉴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자연 으뜸
가는
구례